
일반논문

중부 지역 점토대토기 사회에 대한 다른 인식

송만영*

[초 록]

지금까지 중부 지역 점토대토기 사회는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과, 이를 전제로 한 이주민과 재지민의 공존과 갈등, 그리고 교류 및 재편이라는 틀 속에서 설명되었다. 또한 외래 집단의 이주가 광역의 지역 통합과 본격적인 계급적 복합사회로 변화하는 등과 같은 문화변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의 논리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고고학 자료와 잘 부합되는 설명 틀인지 검토하고 그 대안적 가설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은 문헌의 역사 기록을 편년과 문화 해석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방법론과 특징의 유물복합체를 집단으로 이해하는 인식론이 결합되면서 주장된 것이지만, 실제 남한 지역의 인구 변동에는 확인되지 않은 실체이다. 또한 계통론적인 인식과 공존, 갈등설이 전제되어 점토대토기 유적 편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증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며, 주거지의 중복 및 유물의 공반 관계에서 편년 오류가 확인되기도 한다. 필자는

* 송실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주제어: 중부 지역, 점토대토기, 이주, 인구 변동, 관계망
Central Region, Clay-band Rim Pottery, Migration, Population Fluctuation,
Network of Relation

그 대안으로 관계망설을 제안하였는데, 청동기시대 중기 이래의 인구 감소, 대형취락의 해체에 이어 취락의 분산, 소형화와 혼합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재지 집단이 사회 통합과 계층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였다는 견해이다. 즉 재지 집단이 요동, 서북 지역, 그리고 중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의 관계망을 통해 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문화를 순차적으로 수용하였고, 제장과 같은 지역 관계망을 통해 그 문화를 확산하였다고 본다.

1. 머리말

점토대토기 사회에 대한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은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¹⁾를 전제로 한다. 이는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전국(戰國)연(燕)의 진개(秦開)가 고조선을 공략하여 서쪽 2천여 리의 땅을 빼앗고 경계를 만변한으로 삼았다는 중국 문헌 기록을 기저로 한다. 또한 점토대토기의 유물복합체를 집단으로 인식하면서 남한 지역의 점토대토기 사회는 이주민과 재지민의 공존과 갈등, 그리고 교류와 재편²⁾이라는 틀 속에서 설명되었고 또한 이를 전제로 점토대토기 유적들이 편년되었다.³⁾ 그 결과 남한 지역의 점토대토기 사회는 청동기시대와는 다른 광역의 지역 통합과 본격적인 계급 복합 사회로 진일보하였다고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는 편년에 머물렀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점토대토기 사회 이해에 까지 연구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학사

1) 박순발(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對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2) 박순발(1997), 「漢江流域의 基層文化와 百濟의 成長過程」, 『韓國考古學報』 36, 韓國考古學會; 李亨源(2005), 「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樣相 — 中西部地域 住居遺蹟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12, 湖西考古學會.

3) 朴辰一(2007), 「粘土帶土器, 그리고 靑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 『韓國靑銅器學報』 1, 韓國靑銅器學會.

적으로 의미가 크다. 또한 현재에도 이러한 인식이 점토대토기 유적의 편년과 사회 복원 연구에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필자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먼저 점토대토기 단계 취락의 고지성 입지가 기존 주장과는 달리 이주민과 재지민 간의 알력과 긴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당시 인구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대형 취락이 해체되어 분산, 소형화 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취락군의 공간적인 통합 범위도 축소되어 광역의 지역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이에 점토대토기 단계 취락의 특징인 취락 규모의 축소와 단기 지속, 주거지 소형화, 그리고 고지라는 독특한 취락 입지가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청동기시대 중기 이래의 대형 취락 해체와 인구 감소라는 장기지속적인 문화변동의 연장선상에서 생계경제를 혼합경제로 전환한 결과로 보았다. 또한 제장(祭場)의 성격을 갖고 있는 환구 시설이 분산된 취락들의 결집을 위한 사회경제적 관계망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보았다.⁴⁾

이 견해는 이주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문화변동의 주체로써 재지민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이주민과 재지민과의 상호작용으로 점토대토기 사회를 이해하기에는 현재의 고고학 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그 근거도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기에 그 대안으로 관계망설을 제안하였고 학계에서도 이 주제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필자가 제기한 문제 제기와 제안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토대토기 사회에 대한 기존 설명 틀이 견고해져 갔다. 이에 점토대토기 사회에 대한 기존 설명 틀의 문제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관계망설을 보완하고

4) 宋滿榮(2011), 「中部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聚落 構造와 性格」, 『韓國考古學報』 80, 韓國考古學會.

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점토대토기 사회의 이해에 전제가 되는 이주설과 이를 전제로 한 공존, 갈등설, 그리고 교류, 재편설 등의 설명 틀이 학계에 미친 영향과 함께 논리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서울·경기이남 지역과 북한강유역에서 점토대토기 사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차이가 확인되는 바, 중부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취락 또는 유구 단위의 편년을 시도하고 필자의 편년안에 따라 기존 설명 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 변동에 관한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점토대토기 집단의 대규모 이주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내외 관계망을 통해 재지 집단들이 새로운 점토대토기, 세형동검문화를 순차적으로 수용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점토대토기 사회에 대한 설명 틀과 문제점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은 박순발의 논문을 통해 처음 제기되었다. 박순발은 한강유역과 충청남도의 서해안에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현한 배경으로 연 장수 진개의 고조선 공략을 계기로 요령 지역의 고조선 주민이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이주한 결과로 이해하였다. 또한 한강유역에 이주한 주민들은 재지인들과의 일정한 기간 동안 공존하면서 갈등 관계를 유지하지만, 곧 재지인들을 기층민으로 재편하면서 세형동검기에 지식묘사회보다 광역의 지역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⁵⁾

이러한 일련의 주장은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과 재지인과의 갈등설, 기층민으로의 재편설로 요약되는데, 점토대토기 사회를 이해하는 가

5) 박순발(1997), p. 26.

늪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현재까지 점토대토기 단계의 세부 편년과 취락 연구에서 견고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점토대토기 출토 유적의 편년과 점토대토기 사회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예외 없이 이주설에 기초한 재지민과의 갈등설, 재지민의 재편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편 외래계의 점토대토기 집단과 재지 집단의 상호 작용을 중점적으로 조명한 이형원은 박순발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재편설보다는 교류설을 주장하였다. 즉 선주민 집단과 외래 이주민 집단의 다양한 문화접변을 관찰하고 모델화 하였는데, 계보가 다른 두 집단의 오랜 공존과 서로 간의 전략적인 교류와 통혼을 강조하는 입장이다.⁶⁾

이와 같이 박순발의 이주설, 갈등설, 재편설과 함께 이형원의 공존설과 교류설은 점토대토기 사회를 이해하는 논리의 기본 틀을 구성하며 다른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학계에 미친 영향과 함께 설명 틀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박순발의 이주설은 문헌의 역사 기록을 편년과 문화 해석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방법론과 특정의 유물복합체를 집단으로 이해하는 인식론이 결합되면서 주장된 것이다. 따라서 계통론적 관점에서 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유물복합체를 집단으로 인식하게 하여 점토대토기에는 ‘~인’, 또는 ‘~집단’ 등이 수식어처럼 붙거나, 또는 ‘외래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무문토기를 청동기시대 주민, 지석묘 집단, 또는 재지계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각 토기를 이주민과 선주민으로 치환하여 두 집단의 상호작용을 갈등, 공존, 교류, 재편 등으로 설명한다.

점토대토기 단계의 갈등설은 요령 지역에서 이주해 온 점토대토기 집단과 재지의 지석묘 집단이라는 갈등 주체가 제시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박순발은 취락의 고지성 입지 이외에도 점토대토기 집단이 지석묘

6) 李亨源(2015a), 「粘土帶土器文化 流入期 模倣土器의 社會的 意味」, 『崇實史學』 16, 崇實史學會.

집단과의 마찰을 피해 비교적 그 세력이 강하지 않은 소규모 지식묘 밀집 군 또는 공백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한 점을 갈등의 근거로 삼고 있다.⁷⁾

하지만 당시 분석에 사용되었던 점토대토기 유적들이 모두 점토대토기 유입기의 유적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이 유적들이 늦은 청동기시대 유적들과는 배타적인 분포 정형을 보이는데도 불분명하다. 최근까지의 발굴조사에서 점토대토기 취락의 입지는 고지뿐만 아니라 구릉, 충적대지 등 다양하며,⁸⁾ 고지에 입지한 점토대토기 취락이라 하더라도 대개는 청동기시대 취락들과 평면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설은 논리적 근거를 보완하지 않은 채, 다른 문화 집단 간의 대규모 전쟁이라는 구체적인 갈등설까지 주장되기에 이르렀다.⁹⁾

점토대토기 단계의 공존설은 재지계의 관창리 취락과 외래계의 교성리 취락이 동시기라는 견해에서 출발하여¹⁰⁾ 송국리식토기와 원형점토대토기의 탄소연대측정치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자료가 축적되면서 공존설은 학계의 중론으로 자리 잡아갔다. 관창리 취락과 교성리 취락의 유물복합체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시기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송국리유형 또는 수석리유형을 집단으로 전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국리유형, 역삼동유형, 천전리유형, 검단리유형 등 재지 유형과 외래의 수석리유형의 공존은 계통이 다른 집단의 공존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존설은 비교 대상이 서로 다른 유물복합체이기에 동시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설령 유물복합체에 공통된 속성, 또는 유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형식 내지 유물복합체 수준에서 비교하지 않는 한, 동시성을 입증할 수 없다. 예컨대 관창리 79호 주거지의 송국리식토기와

7) 박순발(1997), p. 23.

8) 宋滿榮(2011), pp. 36-37.

9) 孫峻鎬(2009), 「청동기시대의 전쟁」, 『갈등과 전쟁의 고고학』, 제33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p. 97.

10) 李亨源(2005), pp. 21-23.

교성리 6호 주거지의 점토대토기에 동일한 타날문이 관찰된다고 해서 두 유적이 동일 시간대라고 할 수 없다.

점토대토기 단계의 교류설은 재지 집단과 외래계 이주 집단의 공존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갈등의 극복 방안으로 상대 집단의 물질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했다는 견해¹¹⁾이다. 대부분의 점토대토기 유적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지계 유물과 외래계 유물이 공반되기 때문에 갈등설과 공존설보다는 상대적으로 설명하기 쉽다. 교류설은 이주민 중심의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사회 재편보다는 지역 또는 유적에 따라 이주민과 선주민의 선택적 수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가령 중서부 지역과 강원 영동 및 영서 등 지역 또는 취락에 따라 유물복합체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는 재지 및 외래 집단이 상대방의 문화를 수용한 정도를 반영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의 변동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테면 유물복합체 차이를 시간으로 보지 않고 수용 정도로 파악하기 때문에 유적의 제 양상들을 과정이 아닌 동일 시점의 교류 양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점토대토기 단계의 재편설은 고조선의 이주민들이 선주민들을 기층으로 재편하여 지석묘 사회보다 광역의 지역적 통합을 이루었다는 견해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이주는 정치적인 요인(진개의 고조선 공략)으로 발생했으며, 따라서 이주민은 대규모이고 선진적이라는 점, 둘째, 지석묘 밀집군보다 세형동검기의 유적 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지역 간의 통합이 진행된 결과로 청동기의 분포상 직경 15 km 내외의 범위가 통합 범위라는 점이다.¹²⁾ 최근 점토대토기의 출현 시점이 상향되면서 정치적인 사건과 무관한 생계형 이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¹³⁾ 여전히 연 장수 진개의 고조선 공략으로 고조선 주민이 대규

11) 이형원(2016), 「충청서해안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 유입과 문화접변」, 『호서고고학』, 34, 호서고고학회, p. 23.

12) 박순발(1997), pp. 25-26.

모로 이주했다고 본다.¹⁴⁾

하지만 고조선 공략과 고조선 주민 이주와의 인과 관계는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으며, 이주민의 성격도 불분명하다. 과연 이주민의 규모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우월한 기술과 선진 정치 사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토착 지식묘사회를 장악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에 의해 재편하게” 되었다는 해석¹⁵⁾과 같이 이주민이 지식묘 집단보다는 선진적이었는지도 불분명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주민 중심의 재편보다는 수용자의 선별적 수용 관점에서 점토대토기 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경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¹⁶⁾ 이는 근본적으로 이주민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지역에 따라 선주민들이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의 과정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견해이다. 이형원의 교류설도 이와 같은 맥락이지만, 여전히 선진적인 이주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세부적인 역할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와는 달리 이주민이 궁극적으로 재지 문화에 동화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지역에 따라 동화 과정의 완급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이주민과 재지민의 생업구조가 유사한 검단리유형 분포권에서는 쉽게 동화가 이루어지지만, 생업구조가 다른 송국리유형 분포권에서는 이주 초기에 얼마간 대립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본다.¹⁷⁾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유물복합체를 집단으로

13) 안재호(2016a), 「충설」,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 編年』 2, 서울: 서경문화사, p. 10.

14) 박순발(2015), 「점토대토기문화의 기원과 전개」, 『점토대토기문화의 기원과 전개』, 제9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韓國青銅器學會, p. 17.

15) 박순발(1997), p. 22.

16) 김범철(2001), 「남한지역 후기무문토기문화의 성격 연구 — 서울지역 연구를 위한 시론적 고찰 —」, 『서울학연구』 1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7) 이창희(2018), 「점토대토기문화 유입에 의한 취락과 생업구조의 변화」, 『토지 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제4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p. 92.

인식하는 계통론적 관점에서 점토대토기 사회는 이주설, 갈등설, 공존설, 교류설, 재편설 등으로 설명된다. 최근 일방적인 재편설보다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늘어나긴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유물복합체 수준의 형태 변이를 이주민 집단과 선주민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박순발의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과 갈등설은 남한 지역에서 점토대토기의 출현 시점과 편년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가령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박순발의 점토대토기 기원전 300년 상한설은 연장수 진개의 고조선 공략과 이로 인한 요령 지역의 점토대토기를 사용하는 고조선 집단의 이주설에 근거한다. 문헌기사의 사실(史實)을 고고학 물질자료의 편년에 적용하였을 때의 문제점은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었지만,¹⁸⁾ 사실이 여전히 문화변동의 동인으로 이용되는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이주설과 갈등설은 중부 지역 점토대토기 단계 유적의 편년관에도 영향을 주었다. 즉 이주설은 中國 新民縣 公主屯 后山 1호 주거지와 같이 원 거주지의 것과 가장 유사한 유물복합체를, 갈등설은 고지대에 입지한 유적들의 유물복합체를 이른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편년 작업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고학 자료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이주설과 갈등설이 편년의 전제가 되어 유적 또는 유물복합체의 순서를 먼저 결정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가령 박진일은 세형동검이 등장하기 이전의 중부 지역 점토대토기 유적을 한반도에 점토대토기문화가 처음 등장하는 1단계와 점토대토기문화가 재지문화와 접변을 시작하는 2단계 유적으로 단계 설정하였다.¹⁹⁾

18) 김장석(2014), 「한국고고학의 편년과 형태변이에 대한 인식」, 『韓國上古史學報』 83, 韓國上古史學會, p. 23; 이창희(2016), 「한국 원사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 『한국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 제4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pp. 110-114.

주목되는 점은 수석리 유적을 1단계 유적으로 편년하고 있는데, 유구석부와 같은 재지계 석기가 출토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점, 그리고 한강유역을 포함한 중서부해안 지역이 점토대토기의 최초 도래지라고 한 점은 박순발의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과 이주 경로(서해 연안해로)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박진일의 유적 편년은 점토대토기의 구연 형태, 장경호의 파수 형태, 그리고 두형토기의 대각 형태 등 토기의 형식학적 변화를 기초로 한 것이지만, 석기에서는 유구석부와 석도가 공반되지 않은 유물복합체가 공반된 유물복합체보다 이르다고 기준을 제시한 점으로 보아 그의 편년관에는 이주설이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수석리 유적을 이르게 본 결정적 근거인 장경호의 환형파수는 조합식우각형파수인 점이 드러나면서²⁰⁾ 초기의 점토대토기 유적인지 불분명해졌다.

이형원은 중부 지역 점토대토기 유적을 비파형동검 단계, 세형동검 단계, 그리고 초기철기 단계로 구분하였다.²¹⁾ 논문을 발표할 당시까지만 해도 중부 지역에서 점토대토기 단계의 비파형동검이 발견된 사례가 없지만, 유구석부와 석제 검파두식의 공반 관계를 통해 비파형동검 단계의 점토대토기 유적들을 선별하였다. 다만 출토 유물이 언급되지 않은 수석리와 안성 반제리 유적이 비파형동검 단계로 편년된 점이 주목된다. 아마도 보령 교성리 유적과 같이 고지대에 입지하고 있으며, 公主屯 后山 1호 주거지와 같이 벽부노지가 설치된 점 등에서 점토대토기문화 유입기의 유적으로 파악하는 듯하다.²²⁾ 이처럼 출토 유물의 관찰 없이 고지

19) 박진일(2007).

20) 이창희(2008), 「水石里式土器의 再檢討」, 『考古廣場』 3, 부산고고학연구회.

21) 李亨源(2011), 「中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時間性과 空間性」, 『湖西考古學』 24, 湖西考古學會.

22) 李亨源(2015b), 「住居文化로 본 粘土帶土器文化의 流入과 文化變動 — 江原 嶺東 및 嶺西地域을 中心으로 —」, 『韓國青銅器學報』 16, 韓國青銅器學會, p. 96.

입지와 벽부노지의 존재만으로 비파형동검 단계의 점토대토기 유적으로 파악한 이형원의 편년관에는 이주설과 갈등설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한편 갈등설의 연장선상에서 점토대토기 유입기에 점토대토기 집단과 재지 집단이 배타적인 입지에 거주하였다는 공존설 역시 점토대토기 단계 유적 편년에도 영향을 준다. 공존설은 필연적으로 재지 집단 유물복합체의 하한을 점토대토기 단계의 일정 시점까지 늦추는 역할을 한다. 가령 심재연은 춘천 삼천동 유적과 같이 구릉에 입지한 점토대토기 집단과 중도 유적과 같이 하천 충적평야지대에 입지한 청동기시대 주민들이 공존하다가 점토대토기 집단의 취락이 하천 충적평야지대로 옮겼다고 주장한다.²³⁾ 또한 김권중은 공존설을 구체적으로 편년에 적용하였는데, 북한강유역의 경우 충적대지에 입지한 무문양심발의 재지계 취락과 낮은 구릉에 입지한 점토대토기의 외래계 취락이 공존한 바, 이 두 가지 계통의 취락을 모두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하였다.²⁴⁾ 특정 시점에 점토대토기문화가 충적대지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심재연의 견해와 동일하다.

이러한 공존설은 편년뿐만 아니라 인구 변동 해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점토대토기 취락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인구 규모가 감소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재지 집단 유물복합체의 하한을 늦추어 생활 유적의 공백을 메우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²⁵⁾

이와 같이 이주설, 갈등설, 공존설, 교류설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결

23) 심재연(2011), 「경질무문토기의 기원 — 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고고학』 10-1, 중부고고학회, p. 39.

24) 김권중(2016), 「중부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 編年』 2, 서울: 서경문화사, p. 121.

25) 진영민(2015), 「중서부지방 점토대토기문화 취락의 변천과 성격」, 『점토대토기문화의 기원과 전개』, 제9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韓國靑銅器學會, p. 63.

합되어 편년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계통론적 관점에서 집단을 전제로 한 편년은 이주설과 갈등설에 따라 고지에 입지하면서 기원지의 조형에 가장 유사한 유물복합체(①), 그리고 이와 공존하고 있는 재지민의 유물복합체(②)를 오래된 것으로 파악하고 교류설에 따라 계보가 다른 두 요소가 혼합된 유물복합체(③)를 늦은 것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계보가 다른 두 요소의 빈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물복합체(③)는 시간 차이가 아니라 동일 시점의 교류 양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박순발의 이주설은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가 남한 지역에서 광역의 지역적 통합과 본격적인 계급적 복합사회의 형성을 촉발한 문화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이 시기를 ‘細形銅劍期’라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²⁶⁾ 또한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와 문화변동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은 확장되어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²⁷⁾

하지만 학계에서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로 인한 문화변동에 의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몇몇 연구자들이 한국 청동기 사회의 해체 배경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단적으로 이창희는 안정적이고 세력이 강했던 송국리 취락이 원형점토대토기인들에게 어떻게 주도권을 내주었는가 하는 의문을 피력하기도 하였는데,²⁸⁾ 대규모의 송국리 문화사회의 소멸은 일종의 수수께끼와 같은 사건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²⁹⁾ 사실 점토대토기 이주 집단의 규모와 선진성이 구체적인 고고학 자료를 통해 규명된 적은 없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청동기문화 해체와의 인과 관계가 자동적으로

26) 박순발(1997), p. 22.

27) 안재호(2016b),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 編年』 2, 서울: 서경문화사, pp. 32-33.

28) 이창희(2016), pp. 118-119.

29) 안재호(2016b), p. 33.

설명될 수는 없다.

둘째는 점토대토기 사회 성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다. 즉 문화 변동 이후의 점토대토기 사회를 광역의 지역적 통합이 이루어진 본격적인 계급적 복합사회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취락 자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희 역시 송국리문화가 해체된 이후 초기철기 시대가 끝날 때까지 점토대토기 집단이 왜 안정적인 수도작을 영위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왜 대규모 취락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지에 입지하였는지의 의문을 제기하였다.³⁰⁾ 아무래도 점토대토기 사회를 지식묘 사회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한 것은 주로 다종다량의 청동기가 부장된 무덤 자료에 초점을 맞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취락 자료에서 판단하건대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을 전제로 한 문화변동을 구체적인 고고학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중부 지역을 서울·경기이남 지역과 북한강유역으로 구분하여 유적의 편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점토대토기 사회 이해에 토대가 되었던 기존 견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유적 편년과 기존 설명 틀에 대한 비판적 검토

3.1. 서울·경기이남 지역

서울·경기이남 지역 점토대토기 단계의 편년 연구는 박진일의 논문을 기초로 이형원과 진영민이 편년 논문을 발표하였다. 먼저 박진일은 한국식동검(3단계)이 출현하기 이전을 1, 2단계로 세분하였으며, 전국계 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현한 단계를 4단계로 시기 구분하였다. 그

30) 이창희(2016), p. 119.

리고 조합식우각형파수부장경호와 유구석부의 공반 여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였다.³¹⁾ 이형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진일의 1, 2단계를 합쳐 비파형동검 단계로 설정하고, 이외에 세형동검 단계, 초기철기 단계로 설정한 것은 박진일의 시기 구분과 동일하다. 박진일의 1, 2단계 세분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은 파수부장경호 기종에서 환형파수의 단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유구석부의 공반 여부가 시간을 반영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³²⁾ 진영민 또한 박진일의 1, 2단계를 I 단계로 합쳤지만, 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출현 시점 차이를 반영하여 박진일의 4단계를 III, IV 단계로 세분하였다.³³⁾

이와 같이 여러 연구자들은 점토대토기의 구연부 변화와 금속기의 출현 시점을 시기 구분의 획기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취락 자료에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금속기는 취락에서 출토된 사례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특정 유적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토기와 석기의 형태 변화, 또는 특정 기종의 출현을 기준으로 유물복합체를 순서배열하고 이를 금속기가 공반된 무덤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편년하고 있지만, 형식과 기종 수준의 형태 변이는 시간을 반영할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³⁴⁾ 따라서 여러 연구자들의 시기 구분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취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뚜렷한 점토대토기 구연부의 단면 형태만으로 단계를 구분하고자 한다. <표 1>과 같이 원형점토대토기만 출토된 유적(1단계)과,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된 유적(2단계),³⁵⁾ 그리고 마지막으

31) 박진일(2007).

32) 李亨源(2011).

33) 진영민(2015).

34) 이창희(2013), 「청동기시대 후기의 역연대」,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p. 473.

35) 유구 단위로 편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유물의 유존 상태가 좋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유적 단위로 편년하였다. 하지만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

〈표 1〉 서울·경기이남 점토대토기 단계 생활 유적

| 시기 | 유적 | 점토대토기 (유물 수량) | | 유구(수량) | | | | | | |
|----------|----------|------------------|-----|--------|----|----|----|----|----|----|
| | | 원형 | 삼각형 | 주거지 | 수혈 | 무덤 | 환구 | 환호 | 도랑 | 패총 |
| 1단계 | 인천 중산동 | · | · | 2 | | | | | | |
| | 서울 대모산 | 6 | | 1 | | | | | | |
| | 남양주 수석리 | 3 | | 6 | | | | | | |
| | 용인 대덕골 | 16 | | 1 | 3 | | | | | |
| | 용인 농서리 | 9 | | | 7 | 1 | | | | |
| | 파주 갈현리 | 33 | | | | | | | 2 | |
| | 부천 여월동 | 12 | | 2 | 2 | | | | | |
| | 부천 고강동 | 8 | | | | | 1 | | | |
| | 화성 정문리 | 4 | | | | | 1 | | | |
| | 화성 동화리 | 6 | | 1 | | | | | | |
| | 오산 청학동 | 12 | | | | 1 | 1 | | | |
| | 화성 장안리 | · | · | 1 | | | | | | |
| | 오산 가장동 | 5 | | | 9 | | 1 | | | |
| | 파주 와동리IV | 13 | | 1 | | | | | | |
| | 화성 동학산 | 35 | | | 2 | | 1 | | | |
| 안성 반제리 | 32 | | 72 | | 3 | 1 | 1 | | | |
| 수원 읍전동 | 5 | | | 7 | | 1 | | | | |
| 수원 읍전동II | 7 | | | 4 | 2 | | | | | |
| 2단계 | 광주 역동 | 3 | 3 | 6 | | | | | 1 | |
| | 화성 도이리 | 11 | 13 | | | | | | 2 | |
| | 평택 원정리 | 9 | 13 | | | | | | | 1 |
| | 시흥 오이도 | 35 | 47 | | | | | | | 1 |
| 3단계 | 평택 내리 | | 1 | | 1 | | | | | |
| | 이천 이치리 | | 2 | 1 | 1 | | | | | |
| | 서울 가락동 | | 3 | 2 | | | | | | |
| 원삼국 | 인천 운북동 | | 1 | | 1 | | | | | |
| | 양평 양수리 | | 1 | | 1 | | | | | |

된 유구가 확인될 경우에만 2단계 유적으로 파악하였다.

로 삼각형점토대토기만 출토된 유적(3단계) 등으로 구분된다. 인천 운북동과 양평 양수리 537-1번지 유적은 원삼국시대로 편년되는 유적으로 비록 1점이지만, 완형의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삼각형점토대토기만 출토되는 유적들은 점토대토기 단계 가운데 가장 늦은 시점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1, 2단계 생활 유적에서 비파형동검 단계와 세형동검 단계, 그리고 초기철기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동착 거푸집이 출토된 화성 동학산 유적의 경우에 세형동검 단계로 편년하거나,³⁶⁾ 용도 불명의 철기편이 출토된 화성 도이리 유적은 출토 정황에 문제가 없다면, 초기철기 단계로 편년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원형점토대토기의 변화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기를 고려하여 생활 유적을 편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무덤 자료를 참고한다면, 인천 검단 V-1-B 지구 목관묘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주조철부가, 화성 발안리 2호 목관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철도자가 공반되기 때문에 1단계의 늦은 시점에 무덤에 철기를 부장하는 전통이 개시되고 2단계에는 생활 유적에까지 철기가 소비되는 양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과, 갈등설, 그리고 공존설과 관련하여 점토대토기 유입기의 유적을 특정하지만, 최근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가령 남양주 수석리 유적이 고지에 입지하면서 기원지의 조형에 가장 유사한 유물복합체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가장 이른 유적으로 편년하고 있지만, 반제리 유적과의 파수부장경호 기종의 파수 형태 비교에서 오히려 늦게 조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⁷⁾ 또한 반제리 유적의 주거지 중복 관계에서 벽 쪽에 치우친 벽부노지가 주거지 중앙 장축에 설치된 노지보다 늦게 편년되어 결과적으로 수석리 유적은 반제리 유적의 최초 조성 시점 보다는 늦지만, 벽부노지가 설치된 시점부터는 병행했다고 보는 연구³⁸⁾

36) 李亨源(2011), p. 80.

37) 이창희(2013), p. 475.

도 있다. 따라서 벽부노지가 설치된 수석리, 보령 교성리 유적이 비파형 동검기의 점토대토기 유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하겠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점토대토기 유입기로 편년되었던 고지성 취락들이 갈등설을 입증하는 자료로 자주 언급되지만, 대체로 청동시대 중기 후반의 유물이 일부 공반된다는 점이다. 즉 수석리 유적의 무문양 심발과 원시타날문이 새겨진 외반구연토기, 그리고 교성리 유적의 적색마연토기가 공반되어 점토대토기 기원지의 유물복합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유적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유적들을 최근 갈등설보다는 교류설로 설명하고 있어, 적어도 갈등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없는 듯하다.

반제리 유적 주거지의 중복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 시점의 주거지는 중앙 장축에 노지가 배치된 주거지로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의 주거지와 닮아 있다. 대개 규모는 소형이고 1개의 노지가 배치되며, 옥내 저장공이 없거나 많어도 1~2개 내외이다. 이러한 재지 성격의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이보다 늦게 조성된 주거지에서는 벽부노지가 확인되지만, 노지 형태만 바뀐 것이지, 주거 유형 자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벽부노의 출현 시점은 점토대토기 유입기와는 관련이 없으며, 벽부노가 배치된 주거지의 주민 집단이 이주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제리 유적에서 주거지 간의 중복 관계는 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의 출현 시점에 일정한 시간 차이가 있듯이 점토대토기와 벽부노의 출현 시점에도 시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점토대토기와 벽부노가 설치된 주거 유형 등 완성된 형태의 유물복합체가 동시에 유입되었다는 기존 견해와 배치된다. 대개 물질문화의 모든 요소가 세트를 이루어 동시기에 등장하는 현상을 집단 이주의 근거로 파악하기도 하는데,³⁹⁾ 이러한 점에

38) 庄田愼矢(2013), 「中部地域 圓形粘土帶土器期の聚落構造論」, 『韓日聚落研究』, 韓日聚落研究會, 서울: 서경문화사, p. 239.

서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한편 벽부노는 중앙 장축의 노 시설에서 형식학적 변화 과정이 보이지 않고 이와 유사한 것이 公主屯 后山 1호 주거지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외래계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중부 지역의 벽부노는 벽가에 배치된 공통점이 있지만, 후산 1호 주거지의 벽부노 구조와 동일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중부 지역의 벽부노 구조물이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주 집단이 제작한 것이었다면, 원거주지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에서는 양쪽의 벽부노 구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주민에 의해 그대로 재현된 것인지, 아니면 정보가 전해져서 현지인이 제작한 것인지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도식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공반된 중도식 주거지의 경우에도 2세기 전엽에 주거 유형의 변화 없이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유형 계통의 ‘ㄱ’자형 외줄구들이 출현하지만,⁴⁰⁾ 이를 집단의 이주로까지 설명하지 않는 점도 참고가 된다.

이와 같이 점토대토기 유입기의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의 주거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점토대토기 1단계의 어느 시점에 벽부노가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벽부노의 구체적인 출현 시점과 배경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아무튼 점토대토기 유입기의 주거지가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의 주거지와 연결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상의 변화도 검토가 필요하다.

인천 증산동 유적의 청동기시대 취락은 점토대토기 유입기의 토기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적이다. 이 취락은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에 조성되었는데, 주거지 간의 중복이 없고 유물상이 유사하여 단기 지속된

39) 金壯錫(2002), 「이주와 전파의 고고학적 구분: 시험적 모델의 제시」, 『韓國上古史學報』 38, 韓國上古史學會, p. 9.

40) 송만영(2015), 「中島式 住居 외줄구들의 變化와 意味」, 『古問話』 8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취락으로 판단된다. 주거지는 34기가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한 변의 길이가 4 m 이하인 소형의 (말각)방형 주거지이다. 노지는 1기가 설치된 것이 많으나, 노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물은 공렬구순각목토기 또는 공렬토기가 출토된 10, 20, 32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문양의 심발형토기가 공반되며, 특히 무문양의 심발과 외반구연호 기종에 원시타날문이 새겨진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또한 6, 9호 주거지에서는 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6호 주거지 출토의 흑도장경호는 굽상 저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점토대토기 단계의 흑도장경호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흑색 마연 기법과 기형적인 측면에서 점토대토기 단계 흑도장경호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외래계의 흑도장경호를 모방한 토기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중산동 취락은 중기 후반에 조성되어 점토대토기 유입기까지 지속된 취락이라 생각되는데, 점차 외래계 토기의 수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형 방형의 주거지에 외래계 토기의 빈도가 높은 반제리 취락이 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점토대토기 1단계의 어느 시점에 수석리, 반제리, 교성리와 같이 벽부노가 기존의 수혈 노를 대체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유물복합체 수준의 형태 변이에서 계보가 다른 두 요소의 빈도 차이는 집단 간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3.2. 북한강유역

북한강유역의 점토대토기 단계 유적은 주로 춘천 분지에 집중되며, 구릉에 입지한 칠전동, 거두2지구, 삼천동 269-3번지 유적을 제외하면, 대부분 충적지에 입지한다. 또한 칠전동 유적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점토대토기 단계 유구들은 청동기시대 마을이 위치한 지점에 입지하고 있어 점토대토기 관련 유구만의 배타적인 입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점토대토

기가 출토된 유구의 대부분은 북한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인 충적지에 공간적으로 중복되며, 구릉에 입지한 거두2지구, 삼천동 269-3번지 유적조차도 청동기시대 전·중기에 조성된 마을의 입지와 중복된다. 따라서 점토대토기 집단이 재지 집단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배타적인 지역을 선호하여 입지하였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다만 칠전동 유적만이 기준에 청동기시대 마을이 조성되지 않은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데, 이 유적의 조성 시점이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을 뒷받침할 정도로 이른 시기인지는 편년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다.

기존의 북한강유역 천전리유형 시기 세분안에 따르면,⁴¹⁾ 천전리유형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에서는 공렬토기가 출토되지만, 2단계에는 무문양의 심발형토기가 출토된다.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주거지 가운데 공렬토기가 공반된 주거지는 중도(A2) 12호, 산천리 35호, 신매리(47-1) 3호, 우두I 35호, 우두II 5호, 거례리(강원문화재연구원 조사) 33호 주거지 등이 있는데, 대부분 내부퇴적층에서 작은 구연부편으로 출토되어 후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거지 바닥에서 공렬토기가 출토된 우두I 35호 주거지와 우두II 5호 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공렬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토기 등이 공반되어 반대로 점토대토기편이 교란을 통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천전리유형 2단계에 점토대토기가 출현하여 천전리유형의 주거와 공존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천전리유형 2단계, 즉 무문양토기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점토대토기가 출현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천전리유형 2단계의 이른 시점부터 점토대토기가 출현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공존했다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점토대토기가 출

41) 金權中(2008), 『江原 嶺西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와 聚落 構造의 變遷』, 『한일 취락의 연구 — 생산유적과 취락유적』, 한일취락연구회 제4회 공동연구회 발표요지, 한일취락연구회.

토된 주거지의 중복 관계에서 보면, 모두 10여회의 중복 관계가 확인되는데, 원삼국 내지 신라주거지에 의해 파괴되었을 뿐,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중복 관계에서는 모두 늦게 조성되었다. 물론 토기 조합상에서 볼 때, 청동기시대 초기~중기 주거지와 중복 사례가 많이 확인되지만, 무문양토기 단계 주거지와 중복 사례도 있다. 가령 화천 거례리(강원문화재연구원 조사) 11호 주거지는 무문양의 심발형토기 구연부가 출토된 12호 천전리식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는데, 보고자는 12호 주거지를 3단계, 11호 주거지를 4단계로 파악하면서 3단계 주거지의 조성 시점이 4단계 주거지보다 이르지만, 3단계의 어느 시점부터 4단계의 점토대토기 문화가 유입되어 공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점토대토기의 출현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여러 중복 사례에서 점토대토기 출토 주거지가 늦게 조성되기 때문에 천전리유형 2단계의 늦은 시점에 점토대토기가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점토대토기는 천전리유형 2단계의 늦은 시점에 출현하기 때문에 천전리유형 2단계의 주거지와 유물에 점토대토기가 공반된 유물복합체가 가장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천전리식 주거의 특징인 이색점토구역 내지 작업공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지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편년된다.

가령 철정리II 58호 주거지 바닥에서 용도 미상의 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비록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철정리II 55호 주거지와 동일 단계로 파악된다. 현암리 57호 주거지 출토 외반구연토기는 중도식무문토기 외반구연용 기종의 전신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⁴²⁾ 비록 구연부편이지만, 동일한 형태의 토기가 철정리II 55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여전히 계보 문제는 남아 있지만, 외반구연용은 청동기시대에 북한강유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원삼국시대의 대표적

42) 심재연(2011), p. 38.

인 기종이라 점토대토기 단계에서 늦게 편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암리 주거지와 같은 시기로 보이는 현암리 42호 수혈에서 유공형 청동축의 정부편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보고서에는 완주 갈동 3호 토광묘 출토 有蓋式 兩翼鏃과 비교하여 그 연대를 기원전 3세기 말로 비정하기도 한다.⁴³⁾

이와 같이 천전리식 주거에서 이색점토구역과 작업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양한 석기의 대량 생산 체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향후 이 단계의 석기 기종 및 수량 감소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튼 북한강유역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지 않아 서울·경기이남 지역과의 편년상 병행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천전리식 주거의 소멸 시점이 철기 또는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출현 시점과 대체로 병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구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칠전동 F4호 유구에서는 다량의 점토대토기와 함께 細繩文의 타날문토기편 1점이 출토되었다. 타날문토기의 출토 맥락이 분명하지 않지만, 점토대토기와 공반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⁴⁴⁾ 원삼국시대로 편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동체부편 1점만이 출토되어 토기 그 자체의 편년적 위치는 알 수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따라서 천전리식 주거의 특징인 점토다짐과 작업공의 유무에 따라 북한강유역의 점토대토기 유적은 두 단계로 편년되는데(표 2), 출토 유물이 많지 않아 각 주거지 간의 상대 순서를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천전리유형 2단계의 토기 기종이 감소하면서 점토대토기, 흑색장경호, 두형토기, 파수부장경호 기종이 증가하는 경향을

43) 李厚錫 先生의 교시에 따르면, 이 유물은 횡단면 육각형의 종횡비와 잔존 형태로 보아 장수 남양리 4호묘 출토의 유단식 동착 내지, 함평 초포리 적석목판묘 출토의 단신형 동착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중심 연대는 기원전 2세기 전반 전후로 추정된다고 한다.

44) 심재연(2011), p. 40.

〈표 2〉 북한강유역 점토대토기 단계 주거지 상대 배열(○: 이색점토구역, ■: 이색점토구역 + 작업공)

| 단계 | 주거지 | 주거 특징 | 무문토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금속기 |
|--------|---------------|-------|-------------------------|----|---|---|---|---|---|-----|
| 1 단계 | 성산리 1호 | ○ | 무문심발 1 | 1 | | | | | | |
| | 산천리 35호 | ? | 대부소호 1 | 2 | | | | | | |
| | 거두2(북) 11호 | ○ | 내만구연발 1 | 2 | | | | | | |
| | 서상리 1호 | ? | | 1 | | | | | | |
| | 서상리 2호 | ○ | 호형토기 2 | 1 | | | | | | |
| | 우두동I 33호 | ■ | 호형토기 2, 소형발 1 | 2 | | | | | | 청동축 |
| | 거례리(강원) 33호 | ○ | 무문발 2, 호형토기 1, 적색마연토기 1 | 1 | | | | | | |
| | 거례리(강원) 20호 | ■ | 무문심발 1 | | 1 | | | | | |
| | 거례리(강원) 28호 | ○ | | 1 | | | | | | |
| | 삼천동(269-3) 4호 | ? | | | | 1 | | | | |
| | 삼천동(269-3) 6호 | ? | | | | 1 | | | | |
| | 삼천동(269-3) 2호 | ■ | | 3 | | | 1 | | | |
| | 거례리(강원) 11호 | ○ | | 3 | 1 | | 1 | | | |
| 2 단계 | 거례리(강원) 43호 | | 호형토기1 | 2 | | | | | | |
| | 산천리 40호 | | 호형토기 1 | 1 | | 3 | | | | |
| | 거두2(남동) 3호 | | | 1 | | | | | | |
| | 금산리 2호 | | | 8 | 1 | 1 | 2 | | | |
| | 철정리II 55호 | | 호형토기 1 | 1 | | | | 1 | | |
| | 철정리II 58호 | | 무문심발 3 | | | | | | | 철기편 |
| | 현암리 55호 | | | 1 | 2 | | 1 | | | |
| | 현암리 56호 | | | 3 | 1 | 2 | | | | |
| | 현암리 57호 | | | 17 | 1 | 3 | 3 | 3 | | |
| | 칠전동 F1 | | 무문심발 1 | 24 | 1 | 1 | 5 | | | |
| | 칠전동 F2 | | | 22 | 8 | | 3 | | | |
| | 칠전동 F3 | | | 2 | 1 | 5 | 1 | | | |
| 칠전동 F4 | | | 25 | | 3 | 3 | | 1 | | |

(① 점토대토기, ② 흑도장경호, ③ 두형토기, ④ 파수부장경호, ⑤ 외반구연용, ⑥ 타날문토기)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점토대토기는 충적지에 입지한 천전리식 취락에서 처음 출현하는데, 현암리와 칠전동 유적과 같이 늦은 단계에는 그 출토량이 증가되어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를 대체해 갔다. 따라서 완성된 형태의 유물복합체가 북한강유역에 처음 출현했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집단을 전제로 한 이주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최근 현암리 유적의 점토대토기 출토 주거지 가운데 이색점토구역과 작업공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지를 외래계로 파악하여 재지인과 외래인이 공존하면서 상호 작용한 결과로 해석한 견해가 있다.⁴⁵⁾ 이 견해의 근거를 보면, 주거지 중심 축선에 설치된 소위 ‘장축노’가 외래계라는 주장인데, 이는 논리 비약이다. 즉 송국리식 주거가 중심을 이루는 호서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중기에 수혈식 노를 갖춘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보령 교성리 유적의 벽부노와 장축노가 외래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송국리식 주거지가 분포한 호서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중기의 방형 주거에 수혈식 노가 일반적으로 설치되며,⁴⁶⁾ 송국리 유적에서 조차도 장방형 주거지에서 수혈식 노지가 관찰된다. 더욱이 이러한 장축노를 중부 지역에만 확대 해석하여 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수혈식 노가 설치된 주거지를 모두 외래계로 파악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형원의 소위 ‘장축노’가 천전리식 주거에 설치된 수혈식 노와 다름없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요령 지역에서 조차도 유적 사례로 예시하지 않은 장축노를 중부 지역에서 외래계로 파악한 이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지에 따른 유물복합체에서의 차이, 즉 주거지에서 천전리식 유물과 점토대토기 관련 유물의 조성 비율 차이는 주거인이 재지인인가 외래인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45) 李亨源(2015b), pp. 108-111.

46) 현대환(2010), 「湖西地域 靑銅器時代 後期 方形住居址의 展開」, 『韓國靑銅器學報』 7, 韓國靑銅器學報會, pp. 43-46.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북한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대형 취락이 해체되고 소형, 분산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문화를 수용하지만, 그 과정은 보수적이고 점진적이어서 외래 유물의 수용 정도는 일정한 시간 차이를 반영한다.

북한강유역 대형 취락 해체기의 문화적 보수성은 묘제에서 잘 드러난다. 서울·경기이남 지역에서 목관묘라는 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강유역에서는 점토대토기 단계에 지식묘가 지속적으로 조영된다.⁴⁷⁾ 유물의 출토 사례가 많지 않아 개별 지식묘의 축조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중도 유적의 일부 지점에서는 점토대토기 단계에 조성된 지식묘가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강유역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지 않아 서울·경기이남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년할 수 없었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 천전리식 주거의 특징인 이색점토구역과 작업공이 소멸되는 과정과 새로운 점토대토기의 수용 과정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주설, 갈등 및 공존설, 교류설로는 북한강유역 점토대토기 단계의 편년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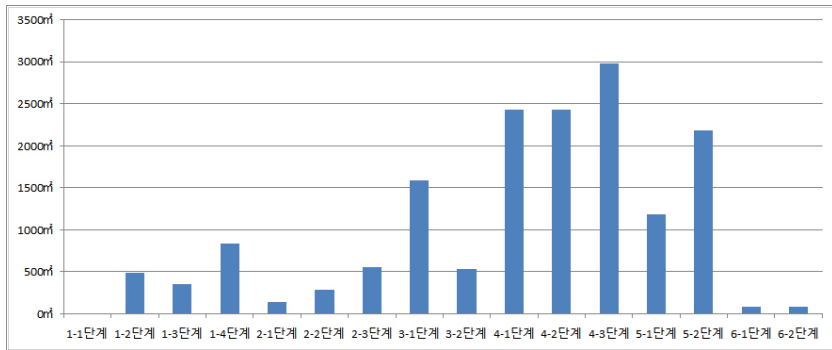
4. 인구 변동과 점토대토기 단계의 관계망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이 학계에 폭넓게 지지를 받아온 것은 문헌에서 이주를 유발한 동기가 확인되고, 물질문화의 모든 요소가 세트를 이루어 동시기에 등장하며, 또한 북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점토대토기의 분포가 확인되지 않아 문화전파로는 남한 지역 점토대토기의 출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장과는 달리 문헌의 史實과 남

47) 송만영(2018a), 「춘천 지역 지식묘 구조 변화와 지식묘군의 조성 과정」, 『古文化』 9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p. 38-39.

한 지역에서 점토대토기 출현은 시간 격차가 있고, 원거주지의 물질문화 총체가 동시기에 남한 지역에 등장하지도 않았다. 다만 북한 지역의 점토대토기 관련 자료는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판단은 유보해야 하겠지만, 이주설이 인구 변화로 잘 설명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즉 지식묘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지식묘 집단을 기층으로 재편할 수준의 대규모 이주였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인구 증가가 고고학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령 북한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인구 변동을 다룬 논문⁴⁸⁾에서는 점토대토기 단계인 6단계에 이르러 주거지의 총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청동기시대 초기 이래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중기 전반의 늦은 시점(4~3단계)에 최 정점에 도달한 뒤에는 급속하게 감소하여 점토대토기 단계에는 최소 수준으로 급락한다(그림 1). 물론 단계별 지속 기간에 차이가 있고 단계를 너무 세분하였기 때문에 인구 변화에 불연속을 보이는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인구 변화를 읽기에는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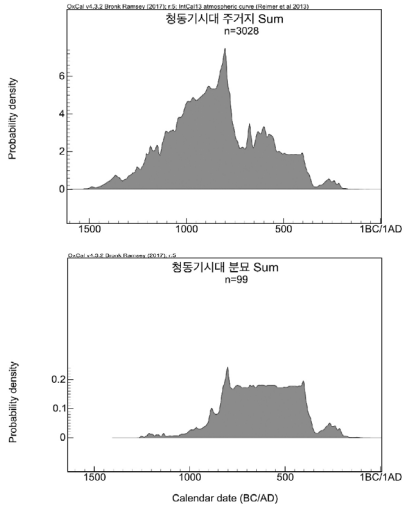


[그림 1]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 면적 변화[김지찬(2017), p. 89].

48) 김지찬(2017),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인구변동과 취락의 변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지만 공존설의 관점에서 중기 후반(5단계)의 유물복합체를 편년적으로 하향시켜 점토대토기 단계로 보는 견해가 있어 인구 감소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춘천 천전리 유적의 경우, 200여기 이상의 수혈유구에 상응하는 대규모 점토대토기 취락이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⁴⁹⁾ 하지만 B지구에 분포한 200여기의 수혈유구 가운데 점토대토기 관련 유물이 출토된 수혈유구는 4기뿐이며, 고려시대의 경질도기와 자기가 출토된 수혈유구도 있다. 더욱이 수혈유구의 94% 이상이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탄소연대측정치를 활용하여 인구 변동을 살펴본 연구 사례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황재훈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데이터가 참고가 된다. [그림 2]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무덤을 대상으로 탄소연대의 확률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⁵⁰⁾ 무덤 자료는 청동기시대 구성원 가운데 무덤을 쓸 수 있는 계층이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구 규모의 변동을 보여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BC 800년을 전후로 주거지와 무덤에서 높은 밀도를 보여주고 있어 이 시점이 인구 과밀의 한계치로 생각된다. 이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확률밀도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BC 700~400년 사이에



[그림 2] 보정연대의 누적확률분포.

49) 金權中(2008), p. 71.

50) 황재훈(2018), 「분묘 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취락 경관의 구축」, 『토지 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제4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p. 74.

서는 곡선이 불연속을 보이거나 갑자기 평탄면을 보여주어 짧은 기간 동안 인구의 증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구간이 2400¹⁴C BP의 평탄면과 중첩되기 때문에 실제 인구 변화를 반영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BC 300년 전후에서 인구가 일시적으로 최저치로 감소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구간이 2200¹⁴C BP를 전후한 시기의 ‘V’자상의 위글 구간에 해당된다. 이 구간에서는 중부 지역에서도 탄소연대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⁵¹⁾ 실제 인구 감소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하튼 점토대토기 유입기의 생계형 이주이든 진개의 고조선 공략에 따른 정치적 이주이든 남한 지역 인구 변동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주민의 존재는 인구 변동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고학 자료로 인지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물질문화의 유입에 이주민의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주민과 재지민과의 공존, 갈등, 그리고 교류를 염두에 둔 점토대토기 유적의 편년과 사회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주민 집단의 대규모 이주, 그리고 재지민과의 교류를 당연시 하였고, 이를 전제로 유적 편년을 하였지만, 사실 이주, 교류는 편년 작업을 통해 유물복합체의 순서가 결정된 이후에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를 문화변동의 배경으로 인식하는 관점도 재고되어야 한다. 주지하듯이 외래 집단의 이주로 내부적으로 계층화가 심화되고 외부적으로 광역의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고고학 자료로 충분히 검토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외래 집단이 지식모 집단을 기층민으로 재편했다거나, 더 나아가서 문화담당 주체가 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없다.

51) 이창희(2019), 「중도식무문토기 출현연대 재검토」, 『韓國上古史學報』 103, 韓國上古史學會, p. 55.

당시의 문화변동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2700¹⁴C BP를 기점으로 인구 변동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인구 감소로 전환되는 세부 시점은 차이가 있겠지만, 중기 전반과 중기 후반부터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남한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인구 감소 속도는 점진적이고 느려서 장기지속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기후 변화 또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없다. 현재의 인구 감소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생계경제의 불안전성이 인구 감소에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²⁾

한편 이 시기의 인구 감소와 함께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대형 취락의 해체 현상이다. 대체로 부양력을 능가할 정도의 인구 과밀이 대형 취락 해체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⁵³⁾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취락의 분산화, 소형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점토대토기 단계에는 농경 위주의 생계경제에서 벗어나 혼합경제로 전환되면서 혼합경제에 유리한 고지에 취락이 늘어나게 되었다.⁵⁴⁾ 취락 규모의 축소와 분산화는 인구 과밀 및 생계경제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그 자체가 사회를 통합하는 데에는 방해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었을 것인데, 지역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서울·경기이남 지역에서는 사회 통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구가環溝이다. 이 유구는 주로 서울·경기이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직경 20~50 m 내외(A유형)이고 큰 것은 100~260 m 내외(B유형)이다. 내부에 주거지가 배치되지 않고 자연 암괴, 적석부, 또는 기둥 구멍만 확인되어 환호의 기능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祭場으로 이해되는데, 구체적으로 천신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⁵⁾ 그리고

52) 송만영(2011), pp. 52-53.

53) 김장석(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 51, 韓國考古學會.

54) 송만영(2011), p. 53.

이와 같은 천신의례를 통해 당시의 수장이나 유력집단이 초기철기시대에 지역정치체의 출현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 내외부에서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사회 통합과 정치체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⁵⁶⁾

그런데 환구 시설이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부천 고강동 유적의 환구에서는 층위를 달리하여 하층에서 공렬토기와 구순각목토기가, 상층에서는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청동기시대에 조성된 환구가 점토대토기 단계까지 그 기능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반제리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은 산 정상부에 환구, 사면부에 환호를 둘렀는데, 이러한 취락의 모습은 평택 용이·죽백동 취락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이 취락은 약보고문에 청동기시대 전기로 편년되었지만, 소형 주거지에서 공렬토기 내지 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환구 시설이 중기에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산 정상부에 입지한 점토대토기 단계의 환구 시설은 청동기시대의 제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운영한 주체 역시 다를 수가 없다. 이를테면 특정 목적의 제의에는 차별화 된 공간(제장)과 제의도구, 공헌물이 동원되며, 이 모두가 특정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지에 입지한 제장의 운영 주체가 이주민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환구의 시기별 변화 과정(표 3)을 보면,⁵⁷⁾ 청동기시대에 비해 점토대토기 단계에 환구의 증가세가 뚜렷하며, 특히 점토대토기 1단계에 집중된다. 또한 청동기시대에는 직경 35 m 미만의 소형 환구가 보이지만, 점

55) 서길덕(2006), 『원형점토대토기의 변천과정 연구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 김권구(2012), 「청동기시대 — 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高地性 環溝)에 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76, 韓國上古史學會, p. 72.

57) 송만영(2018b), 「중부 지역 청동기시대~점토대토기 단계 지역성과 의미」, 『송실사학』 41, 송실사학회, p. 14.

〈표 3〉 중부 지역 환구 유적

| 유적 | 연대 | 유형 | 직경(m) | 해발 고도 |
|------------|-----------|----|-------|-------|
| 구리 토평동 | 초기 | A | 34 | 15 |
| 평택 용이동 | 전기(?) | A | 25 | 54 |
| 인천 검단 V지점 | 중기 | A | 24 | 63 |
| 인천 검단 IV지점 | 중기 | A | 22 | 60 |
| 화성 쌍송리 | 중기 전엽 | A | 35 | 70 |
| 부천 고강동 | 점토대토기 1단계 | A | (30) | 91 |
| 화성 정문리 | 점토대토기 1단계 | A | 52 | 38 |
| 화성 동학산 | 점토대토기 1단계 | B | 110 | 114 |
| 오산 가장동 | 점토대토기 1단계 | B | ? | 75 |
| 오산 청학동 | 점토대토기 1단계 | B | 260 | 40 |
| 안성 반제리 | 점토대토기 1단계 | A | 38 | 95 |
| 수원 울전동 | 점토대토기 1단계 | B | ? | 112 |

토대토기 단계에는 소형 환구 외에도 대형 환구들이 출현한다. 주목되는 점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현하면서 환구 시설이 소멸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이 단계에 오면 취락들이 고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현저히 감소하고 해안 입지의 취락들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구 시설의 변화와 연계하여 취락군의 제의권을 살펴보면, 청동기시대에는 중심 취락에 단독 제장이 운영되지만, 점토대토기 1단계에는 중심 취락의 단독 제장 외에도 여러 중심 취락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제장이 출현한다. 공동 제장의 규모로 보았을 때, 최소 3개에서 최대 5개 가량의 중심 취락들이 공동 제장을 운영하였을 것이라 추정되며,⁵⁸⁾ 제의권의 공간적 범위는 단독 제장이 2 km, 그리고 공동 제장이 6 km로 추산되었다.⁵⁹⁾

58) 송만영(2018b), p. 15.

청동기시대와 비교하여 점토대토기 단계에 환구 시설이 증가하고 큰 규모의 환구 시설이 출현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장의 사회적 통합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청동기시대 중기 이래로 대형 취락이 해체되고 분산, 소형화 되는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⁶⁰⁾ 좀 더 부연하자면, 청동기시대 중기에도 일부 중심 취락을 중심으로 환구 시설이 사회적 통합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당시 사회 통합은 지석묘 의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인구 과밀에 따른 생계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합경제와 같은 보다 안정적인 생계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급감하고 토지를 둘러싼 경쟁이 줄어들면서 지석묘의 사회경제적 기능도 약화되었다. 따라서 지석묘 조성에 많은 인원과 재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이것이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의 지석묘 소형화 과정으로 귀결된다.⁶¹⁾

점토대토기 단계의 제장은 수렵과 채집의 생계경제적 역할이 강조되어 고지가 선호되었고 지석묘 의례에서와 같이 상석의 채석으로부터 운반, 무덤 조성에 이르기까지 행해지는 길고 복잡한 의례 절차⁶²⁾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지석묘 조성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었을 것이다. 점토대토기 단계의 제장 준비는 단지 환구의 조성 과 환구 내의 벌목 작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 중기 이래의 대형 취락의 해체에 따른 취락의 분산, 소형화, 인구 감소, 그리고 혼합경제로의 전환 등 일련의 문화변동

59) 송만영(2011), pp. 42-45.

60) 송만영(2018b), p. 15.

61) 송만영(2018a), p. 56.

62) 윤희필(2007), 「경기도 고인들의 장송의례」, 『경기도 고인돌 연구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 고인돌」 조사보고서 발간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 경기도박물관, pp. 91-103.

은 장기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지 이주설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제장의 확대는 소규모 취락들의 사회적 통합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계망을 복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관계망은 다양한 정보, 지식, 기술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 또는 집단 간의 공식, 비공식적인 연결망으로 특히 세형동검문화를 수용하고 확산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경기이남 지역 점토대토기 단계의 무덤은 목관묘와 위석식 목관묘, 그리고 옹관묘로 구성된다. 이 지역의 지석묘에서는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외래 묘제가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위석식)목관묘는 신전장과 1차장의 장제가 확인되며, 점토대토기와 흑색장경호와 같은 토기를 부장하는 등이 지역의 지석묘와는 매우 이질적인 무덤이다. 이러한 무덤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는데, 점토대토기 단계 이전까지 청동기가 출토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파주 목동리, 인천 검암동, 평택 율북리, 안성 만정리 유적의 목관묘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었으며,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 상일동과 파주 목동리에서 세형동검이 수집되거나 재퇴적층에서 출토되는 등 출토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이 세형동검이 비파형동검과는 다르게 주로 무덤에서 출토된 점, 그리고 이 지역의 점토대토기 단계 주거지에서 청동기가 출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세형동검은 무덤에 소비되는 관념과 함께 이 지역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외래 무덤과 세형동검문화가 서울·경기이남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장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비파형동검 단계의 점토대토기 무덤 사례는 서울·경기이남 지역에서 뚜렷하게 알려진 것이 없지만, 파주 야당리의 유물포함층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이 무덤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동검은 검신의 중간 부분이 없는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세형동검의 검신

중간 부분을 훼손하고 나머지를 부장한 파주 목동리, 안성 만정리 4-1호 목관묘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훼손 현상은 매장의례와 관련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야당리 출토 비파형동검이 무덤과 관련된 유물이라고 한다면, 동검의 훼손 의례는 점토대토기 단계의 비파형동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점토대토기 유입기에 비파형동검이 서울·경기이남 지역에 처음 출현하는데, 이는 서북 지역과의 관계망을 통해서 반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관계망은 요동 또는 서북 지역 그리고 중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의 관계망으로 이 무렵에 형성된 관계망을 통해 이후의 세형동검문화가 유입되었다. 이를테면 광역의 관계망이 세형동검문화를 수용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면, 제장을 통한 지역 관계망이 세형동검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한편 북한강유역은 대형 취락의 해체와 더불어 취락의 소형, 분산화 시점에서 변화된 광역의 관계망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사회 통합을 모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 초기부터 청동 장신구가 출토되고 이어서 전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동검이 주거지와 무덤에서 출토되는 등 이른 시기부터 광역의 관계망을 통해 청동단검문화가 형성되었다.⁶³⁾ 하지만 대형 취락이 해체되면서 청동기 출토량이 급감하였는데, 그나마 양평 상자포리에서 고식 세형동검이 출토되긴 하였지만, 재지 무덤인 지석묘에 부장된 것이다. 서울·경기이남 지역의 경우 세형동검과 묘제, 그리고 매장의례를 포함한 관념 체계가 세트로서 수용된 것과는 달리 남한강유역은 재지적인 전통의 무덤에 외래 청동기만 부장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광역 관계망을 통해 반입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점토대토기 단계의 환구가 서울·경기이남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강유역에서는 지형적인 환경 탓도 있지만, 분산된

63) 송만영(2018b), pp. 24-26.

집단을 결속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별다른 기제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지역 묘제의 보수적 성향은 변화된 광역 관계망으로부터 이탈과 지역 관계망의 부재가 결합된 결과이다.

5. 맺음말

중부 지역 점토대토기 사회는 그동안 점토대토기 집단의 대규모 이주를 전제로 이주민과 재지민의 공존과 갈등, 그리고 교류 및 재편이라는 틀 속에서 설명되었고 또한 이를 전제로 점토대토기 유적들이 편년되었다. 게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중부 지역은 광역의 지역 통합과 본격적인 계급적 복합사회로 변화하는 등 이전과 다른 커다란 문화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었다.

문헌의 사실을 고고학 연구의 전제 조건으로 반영했을 때의 문제점과 특정 유물복합체를 집단으로 인식했을 때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위와 같은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더욱이 점토대토기 집단의 대규모 이주설을 전제로 한 설명모델은 가설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가설을 전제로 가설을 양산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을 비롯하여 공존, 갈등설, 그리고 교류 및 재편설은 현재의 고고학 자료에 잘 부합되지 않으며, 그 근거도 충분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필자는 그 대안적 가설로 재지 사회가 요동, 서북 지역, 그리고 중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의 관계망을 통해 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문화를 차례로 수용하였고 제장과 같은 지역 관계망을 통해 그 문화를 확산시켰다는 관계망설을 제안하였다.

물론 지역에 따라 광역의 관계망에 새롭게 편입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영서 지역과 같이 이탈된 지역도 있어 관계망의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계망의 시발점에 해당되는 중심지가 변동되거나 중심지에

서 관계망의 재편을 시도하여 관계망이 공간적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로운 관계망에 편입하고자 하는 재지 사회의 전략도 관계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수준에서 청동기 관계망의 변화와 배경에 대한 연구⁶⁴⁾가 필요하다.

또한 광역의 관계망에 편입된 재지 사회가 새로운 기술, 지식,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터이지만, 이를 어떠한 전략으로 사회 통합과 계층화로 연결,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가령 광역의 관계망을 통해 유입된 기술,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여 집단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거나 또는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지배력을 관철시키는 등 주도 세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망의 형성과 변화가 재지 집단의 생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료 수준에서 볼 때, 서울·경기이남 지역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만 출토된 1단계 유적에 고지성 취락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환구 유구들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지만,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현하는 2단계 유적부터는 환구 유구들이 소멸하며, 고도가 낮은 지역이나 해안 지역에 취락이 입지한다. 또한 이러한 취락의 입지 환경은 삼국시대에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2단계 이후부터 제장을 통한 지역 관계망의 해체와 함께 생계경제에도 일정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시기 해안 입지 선정은 농경과 같은 청동기시대의 內需經濟가 와해되면서 어로 자원의 중요성과 함께 外需經濟를 위한 물류 관계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⁶⁵⁾도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인과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의 점토대토기 사회를 이해하는 설명 틀로 관계망 설을 제안하였지만, 점토대토기 주민의 이주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

64) 강인욱(2018),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韓國考古學報』 106, 韓國考古學會, pp. 62-65.

65) 이창희(2018), pp. 93-94.

니다. 광역의 관계망을 통해 점토대토기 주민의 이주와 함께 새로운 물질문화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외래계 유물 또는 유구를 이주 집단으로 치환하여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계망설 역시 유적 편년과 자료 해석에서 검증이 필요한 가설적 수준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번 글은 試論的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필자가 제기한 쟁점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작성하게 되었다. 학계의 논의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논 저】

- 강인옥(2018),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韓國考古學報』 106, 韓國考古學會.
- 김권구(2012),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高地性 環溝)에 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76, 韓國上古史學會.
- 金權中(2008), 「江原 嶺西地域 靑銅器時代 住居址와 聚落 構造의 變遷」, 『한일취락의 연구 — 생산유적과 취락유적』, 한일취락연구회 제4회 공동연구회 발표 요지, 한일취락연구회.
- 김권중(2016), 「중부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 編年』 2, 서울: 서경문화사.
- 김범철(2001), 「남한지역 후기무문토기문화의 성격 연구 — 서울지역 연구를 위한 시론적 고찰 —」, 『서울학연구』 1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金壯錫(2002), 「이주와 전파의 고고학적 구분: 시험적 모델의 제시」, 『韓國上古史學報』 38, 韓國上古史學會.
- 김장석(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 51, 韓國考古學會.
- _____(2014), 「한국고고학의 편년과 형태변이에 대한 인식」, 『韓國上古史學報』 83, 韓國上古史學會.
- 김지찬(2017),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인구변동과 취락의 변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발(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對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 _____(1997), 「漢江流域의 基層文化와 百濟의 成長過程」, 『韓國考古學報』 36, 韓國考古學會.
- _____(2015), 「점토대토기문화의 기원과 전개」, 『점토대토기문화의 기원과 전개』, 제9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韓國靑銅器學會.
- 朴辰一(2007), 「粘土帶土器, 그리고 靑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 『韓國靑

銅器學報』1, 韓國青銅器學會.

서길덕(2006), 『원형점토대토기의 변천과정 연구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孫峻鏞(2009), 「청동기시대의 전쟁」, 『갈등과 전쟁의 고고학』, 제3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宋滿榮(2011), 「中部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聚落 構造와 性格」, 『韓國考古學報』 80, 韓國考古學會.

송만영(2015), 「中島式 住居 외출구들의 變化와 意味」, 『古問話』 8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_____ (2018a), 「춘천 지역 지석묘 구조 변화와 지석묘군의 조성 과정」, 『古文化』 9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_____ (2018b), 「중부 지역 청동기시대~점토대토기 단계 지역성과 의미」, 『송실사학』 41, 송실사학회.

심재연(2011), 「경질무문토기의 기원 — 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고고학』 10-1, 중부고고학회.

안재호(2016a), 「총설」,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 編年』 2, 서울: 서경문화사.

_____ (2016b),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 編年』 2, 서울: 서경문화사.

윤호필(2007), 「경기도 고인돌의 장송의례」, 『경기도 고인돌 연구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 고인돌」 조사보고서 발간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 경기도 박물관.

이창희(2008), 「水石里式土器의 再檢討」, 『考古廣場』 3, 부산고고학연구회.

_____ (2013), 「청동기시대 후기의 역연대」,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_____ (2016), 「한국 원사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 『한국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 제4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_____ (2018), 「점토대토기문화 유입에 의한 취락과 생업구조의 변화」, 『토지 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제4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_____ (2019), 「중도식무문토기 출현연대 재검토」, 『韓國上古史學報』 103, 韓國上古史學會.

李亨源(2005), 「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樣相 — 中西部地域 住居

- 遺蹟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12, 湖西考古學會.
- _____ (2011), 「中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時間性과 空間性」, 『湖西考古學』 24, 湖西考古學會.
- _____ (2015a), 「粘土帶土器文化 流入期 模倣土器의 社會的 意味」, 『崇實史學』 16, 崇實史學會.
- _____ (2015b), 「住居文化로 본 粘土帶土器文化의 流入과 文化變動 — 江原嶺東 및 嶺西地域을 中心으로 —」, 『韓國青銅器學報』 16, 韓國青銅器學會.
- 이형원(2016), 「충청서해안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 유입과 문화접변」, 『호서고고학』, 34, 호서고고학회.
- 진영민(2015), 「중서부지방 점토대토기문화 취락의 변천과 성격」, 『점토대토기 문화의 기원과 전개』, 제9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韓國青銅器學會.
- 현대환(2010),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後期 方形住居址의 展開」, 『韓國青銅器學報』 7, 韓國青銅器學報會.
- 황재훈(2018), 「분묘 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취락 경관의 구축」, 『토지 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제4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 庄田愼矢(2013), 「中部地域 圓形粘土帶土器期の 聚落構造論」, 『韓日聚落研究』, 韓日聚落研究會, 서울: 서경문화사.

원고 접수일: 2019년 6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9년 7월 3일

게재 확정일: 2019년 8월 11일

ABSTRACT

An Alternative View on the Clay-band Rim Pottery
Communities of the Central Part of Korea

Song, Man Young*

The clay-band rim pottery communities of the central region of Korea have been understood thus far from the point of view of migration, of co-existence and conflict between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s, and in terms of exchange and reorganization. In addition, the migration of foreign residents has been regarded as a cause of cultural change, bringing about the regional integration of the wider area and transformation into a fully class-divided soci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with the logical structure of such a perception, and to consider whether it is a descriptive frame that is consistent with archaeological data, and to suggest alternative interpretations if required. The migration theory for the clay-band rim pottery group, which was developed by combining the methodology of making historical records as a prerequisite for annals and cultural interpretation with the epistemology of regarding a specific archaeological assemblage as a representing a population group, is an unconfirmed entity. Also, the dating of the clay-band rim pottery sites has been based on the theory of systematic awarenes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oongsil University

coexistence, and conflict. However, no verification has taken place and occasionally errors of chronology have been identified in relation to the overlapping of dwellings and the relationship of artifacts. Therefore, relationship network theory is presented as the basis for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It is proposed that the indigenous group formed strategic networks for social integration and stratification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which involved the dissolution of large villages, their dispersion and the miniaturization, and the emergence of a mixed economy, which had taken place since the middle of the Bronze Age. In other words, it is argued that the indigenous group gradually accepted clay-band rim pottery and the Slender Bronze Dagger culture through a wide regional network that connected the Liaodong region, the northwestern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d-western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the culture had spread through the regional network via nodes such as ritual sites.